

9/13(월) 데살로니가전서 묵상 (12)

데살로니가전서 5:9-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재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서신서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교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교훈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말씀입니다(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그것은 단지 죽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은 이미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삶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미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피차 권면하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권면’의 원어적 의미는 ‘위로하다’입니다. 당시 복음의 방해자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피차간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덕을 세우라’고 교훈합니다. ‘덕을 세우다’의 본 뜻은 ‘집을 세우다’입니다. 이는 서로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들(영적 지도자에 관해)

바울은 재림에 관한 교훈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13절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12-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이 묘사한 사람들은 당시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역에 대해 ‘가장 귀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들 중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주의 사역자들을 극진히 아끼는 신자들이었습니다(갈 4:14-15,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지만 본문은 영적인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직책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 안에서 행한 수고와 섬김 그리고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는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직책을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존경하고 대우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벧전 5:3,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바울은 또다른 서신서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딤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역과 삶에 있어서도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 교회와 인간 사역자들은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역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족함을 서로 용납하고 도우면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적 지도자들도 성경의 교훈과 같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 무리의 본이 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열심과 정성을 다한다면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 중동지역에서 대표적인 친서방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을 제외한 타종교의 자유와 권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미 국무부의 2019 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 이외에 다른 종교와 관련된 종교 출판물과 상징물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배교로 간주되며, 개종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자국 거주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건축조차도 허가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기독교인은 없지만, 인터넷과 기독교 위성 TV 를 통해서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고, 소수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을 위해 중보하자. 오늘은 페어필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이기쁨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자.